

## 복음과 그리스도로 인생을 새롭게 셋팅한 의사 누가

-복음으로 여는 누가복음-

시편 51:10, 누가복음 10:19-20

정윤돈 목사님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오만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운동의 주역이요 제자가 되어서 237, 5천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성격, 인격, 기준, 수준, 표준도 말씀과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 안의 하나님 나라, 평강, 감사, 기쁨이 없다. 그렇게 되면 항상 어떤 것이 ‘부족하다, 마음에 안 든다, 잘못됐다...’ 항상 부정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분열시키고 지옥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초특급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을 해야 한다. ‘오직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 ‘오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복음, 진도가 최고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해야만이 증인이 된다. 그러나 오직 돈, 성공, 자존심,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것이고 나이면 입이 안 떨어진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고급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넘여가지 못한다. 초특급의 신앙이 되면 요셉처럼 원망하지 않고 책임을 돌리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도 총리가 된다. 거듭나는 것도 이제 겨우 구원받는 것이 있고, 전도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있다. 성장과정이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변화되고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 증거를 보여준 인물이 누가이다. 내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는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누가복음은 전도자 누가가 엘리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복음편지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4복음서 중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항상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이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 계명은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신 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섬기셨는데...’ 이것이 복음이 복음화된 것, 거듭난 것, 예수님이 주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빨리 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현상이 행복한 현상이 되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을 구원해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편

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주셨고 어느 동네를 가든지 병든 자, 여인들, 아이들, 죄인들, 심지어 귀신들린 자들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을 사명자로 사용해 주셨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엘리트지도자 데오빌로에게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누가는 순수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 TCK 였지만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사역과 말씀을 자세히 조사하여 정리한 복음엘리트였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발견한 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셋팅하였다. 누가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셋팅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자료를 자세히 조사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말씀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 정리된 말씀이 누가복음서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조사할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부장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이다. 누가는 자신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40가지 이상 많이 나오고 있다. 70인 제자과송, 나무에 올라간 세리 삭개오, 탕자, 선한 사마리아인, 부자와 나사로, 열 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빈 곳을 채워주는 복음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지만, 이 누가복음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데오빌로 각하와 같은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한 복음편지인 것이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던 것이다.

### 1. 첫 번째로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의 한 사람은 아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 드로이에서부터 전도여행에 함께 동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2차 전도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처음으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본인과 함께 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적었던 것이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 누가(루카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빛나다’라는 뜻이다. 의사 누가는 1장 3절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1장부터 26절부터 2장 5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12 제자, 마가다락방과 초대교회 출신도 아니었고 안디옥교회의 출신도 아니었다. 그래서 누가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모든 사역에 대하여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이다. 누가는 TCK 출신의 이방인(헬라인)이었다. 성경 66권 중 64권은 유대인이 기록하였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으로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바로 의사 누가였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권의 책은 그 분량으로 보면 신약성경의 사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사 누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의사 누가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전문성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테마가 너희에게 문안 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냥 의사가 아니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누가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램넛 출신의 전문인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과 출신인 의사이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훌륭한 글로 기록하였

기 때문이다. 의사 누가가 훌륭한 이유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오직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드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가는 의사이자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누가는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성삼위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는데 사용한 전문인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문전도인,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참 복음, 진리를 가졌다. 그리스도로 결론내기를 바란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후대를 축복하신다.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어떤 누가 나를 죽이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것보다 복음과 전도를 우선시 하는 사람이 결론낸 사람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과 그 후대를 축복하신다. 청교도들이 결론낸 사람들이었다. 소수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1) 어떠한 종교와 철학, 지식, 과학, 선행도 인생문제에 대한 참된 답과 해답과 참된 결론도 줄 수 없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답, 응답, 해답과 결론을 알려 줄 수 있다. 복음은 'Good news'이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럽고 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 용서를 받은 자이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인정하고 핑계대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반성하고 회개하면 된다. 남 탓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 사실을 발견한 의사 누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올인하였던 것이다. 가정을 살리고 모든 현장,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은 복음과 복음화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가 이 복음을 가지고 교만한 로마의 지도자인 테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이 거듭나니까 가정과 현장과 로마가 거듭나고 복음화되었다. 로마가 전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에 관계되는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인 중직자 제자들에게 사탄과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면 그때 흑암세력이 꺾이는 것이다. 그때 응답의 문은 열리는 것이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7가지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다. 이것이 복음메시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신분과 권세이다. 이 중에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다. 불신자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아닌 사이트에 영접하니깐 세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2) 두 번째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누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지옥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 어느 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날마다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던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부자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더니 물을 짚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고 갈 수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부자는 지금 세상에 다섯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긴 지면을 사용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지옥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신분권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보좌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서도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보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237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3) 이러한 비밀을 발견한 의사 누가는 LVTNPO의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 즉, 엘리트이고 권력자인 테오빌로 각하도 전도한 Leverage(지렛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Vessel(그릇)으로, 정확한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달한 Transmission의 축복과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Nobody의 TCK 제자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알려준 Platform으로, 그리고 한 번도 직접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참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들을 가장 정확히 전파한 Outsourcing(아웃소싱), 이 6가지 미래전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누가와 같이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언약은 엘리트부터 연약한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평생 비전은 237 나라와 5천 종족들에게 누가와 같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리해 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이 복음과 전도의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24시간 무시로 기도하면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기와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조금만 집중해도 미래의 응답이 앞당겨 보일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행이다. 이번 한 주장은 나의 테오빌로와 나에게 붙여주신 연약한 사람들을 적어 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가 삶 속에 성취되어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누가처럼 미래전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